

블프 특수는 옛말?... 유통업계, 물류·광고 부담 속얇이

〈블랙프라이데이〉

직구 소비자 확보 경쟁 치열
순이익마저 갉아먹으며 행사 진행
“매출보다 소비욕구 잡는게 목표”



지난해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쇼핑객들이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거리를 건너고 있다. 미국 내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온라인 매출은 9조원에 달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5% 매출 감소세를 보였다.

유통업계가 10월 대규모세일에 이어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겨냥해 직구족을 잡기 위한 혜택 마련에 나섰다. 유통업계는 역대 최대 거래액을 기대했지만 파격적인 혜택 뒤에 물류비용, 광고비용 등 감수해야 할 비용이 따라붙으면서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발생한 해외 상품 직구가 곧 완전한 이익은 아니란 지적이 나온다.

◆유통업계 블프 혜택 경쟁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 이커머스 기업을 중심으로 지난 26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겨냥해 여러가지 행사를 진행했다.

올해 처음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맞은 롯데온은 15일부터 행사를 열어 이

미 큰 매출을 올렸다. 롯데온에 따르면 15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해외 직구 상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제품을 해외에서 구입하는 ‘역직구’ 유행에 가전제품 분야 매출이 10배 증가했다.

티몬도 지난해 블랙프라이데이수혜

를 크게 입었다. 티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해외직구 부문 매출은 전월 대비 130% 증가했다. 올해 티몬은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해외직구특가상품에 추가 20% 할인을 더할 예정이다.

지난 8월 글로벌 유통기업인 아마존과 협업해 글로벌 스토어를 연 11번가

는 가장 많은 품목과 상품을 준비했다. 올해는 지난해 할인상품 수(280만개)의 약 2배 수준인 555만개를 준비했다. 여기에는 아마존 인기상품 5만여개가 포함됐다. 11번가는 빠른 배송을 위해 항공기도 이미 마련해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며 매출이 크게 늘었는데, 특히 여행길이 막히면서 연관된 상품이 잘 팔렸다”며 “통상 해외 여행에서 사오는 품목인 명품, 화장품, 먹거리류가 흥했다”고 설명했다.

◆물류비용 탓에 남는게 없다

다만, 블랙프라이데이 열풍을 둘러싸고 우려의 눈길을 보내는 이들도 있다. 블랙프라이데이의 시초는 오프라인 물류 창고의 재고를 빠르게 소진하기 위함이었지만, 물류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이커머스로 블랙프라이데이 수요가 이동하면서 사실상 ‘대형 매출, 초대형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블랙프라이데이 상품들의 가격이 예전만 못한 이유가 여기있다.

실제로 미국 어도비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미국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총 90억달

러(약 9조9450억원)를 사용했다. 전년 동기 대비 21.5% 증가한 수치다. 국내에서는 ‘데이 마케팅’에 대한 피로도와 경쟁 과열에 따른 적자가 문제로 꼽힌다. 유통업계는 이미 지난달부터 연중 최대 할인전을 벌였다. 백화점 정기세일 기간, 코리아세일페스타, 플랫폼 자체 연중 최대 할인전 등 쉬지 않고 이어지는 대규모 할인전이 피로감을 유발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미 해외 직구를 저렴하게 하는 방법을 아는 이들을 잡기 위해서는 순이익마저 갉아먹으며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국내에서의 블랙프라이데이는 사실상 소비자의 추가적인 소비욕구를 잡기 위한 홍보 창구에 가깝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커머스 경쟁이 과열되면서 점점 더 제 살 갉아먹는 식의 프로모션이 이어지고 있지만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대규모 물류비용이 발생하는 블랙프라이데이 자체에서 매출을 기대하기보다는 행사 소식을 듣고 플랫폼에서 다른 상품을 둘러보면서 발생하는 소비 욕구를 잡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진도군 공고 제2021-82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열람공고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산301번지 일원의 계획적인 관리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열람기간 내에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10일

진도군수

1. 제한지역

가. 위치: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산301번지 일원
나. 면적: 84,221㎡

2. 제한사유: 지역개발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한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계획적 개발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자 함

3. 제한대상 행위

구분	대상 행위	비고
제한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행위허가	
제한대상 제외	·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 조치 · 공익사업으로서 개발행위 제한 목적 및 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행위제한 고시일 이전에 개발행위(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공장설립승인·건축허가 및 신고 등) 관련 인·허가를 득한 경우로 기허가 범위 내에서의 변경 · 기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일괄신고가 가능한 범위(증축 설계변경 등) 내에서의 건축물사용승인	

4.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5. 제한기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일로부터 3년간
(단, 제한기간 만료 이전에 관련계획 결정·고시할 경우 해제)

6. 열람기간 및 장소, 주민의견 제출

가.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신문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진도군청 지역개발과
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생략된 조서 및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

7. 기타

· 열람·공고(안)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행정절차(관계기관 협의 등)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지역개발과(☎061-540-38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업계, 3세 경영 시동

농심 신상열, 구매담당 임원 승진
CJ 이선호, 내달 임원 승진 가능성



신상열

이선호

식품업계의 오너 3세들이 경영에 나서며 세대교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심은 지난 26일 정기임원인사를 통해 신동원 회장의 장남 신상열 부장이 구매 담당 임원(상무)으로 승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자재 공급 및 협력업체 관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제조기업에서 구매 담당은 산업 구조 전반을 이해하는 핵심 업무 중 하나로 신 부장은 구매 담당을 맡으며 현장 감각을 익힐 것으로 보여진다. 1993년생 신 부장은 미국 컬럼비아대를 졸업하고 외국계 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뒤 2019년 농심에 입사해 경영기획팀에서 근무해왔다. 농심 창업주인 고 신춘호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농심 주식 35만주 중 20만주를 상속받기도 했다. 신동원 농심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신 부장의 경영권 승계는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CJ그룹은 내달 초 인사가 예정돼있으며 오너 3세 이선호 부장의 임원 승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 부장은 2013년 CJ 공채로 입사해 바이오사업팀과 식품전략기획 1부장 등을 맡은 바 있다. 하지만, 2019년 마약 밀반입사건으로 구속기소되면서 회사에서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때문에 경영권 승계 작업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 정기 임원인사를 통한 이 부장의 경영 복귀를 예상했지만, 이재현 회장의 장녀이자 이 부장의 누나인 이경후 CJ ENM 상무만 부사장대우로 승진시켰다.

그리고 올초 이 부장이 CJ제일제당

글로벌비즈니스 담당 부장으로 복귀해 글로벌 사업 전선에 뛰어 들었다. 연초 비비고 브랜드의 해외마케팅과 미국프로농구(NBA) LA레이커스의 파트너십 체결을 주도하는 등 해외 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있어 임원 승진을 통해 이 부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경영권 승계작업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CJ는 장자 승계 원칙을 고수한다.

현재 직급은 마케팅 중역으로 사실상 상무 대우며 올해 3분기 CJ4우(신형우 선주)를 추가로 매입, 지분율 25.16%를 확보하는 등 경영 승계 과정을 차근차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 관계자는 “연말인사는 12월에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CJ그룹이 각종 인수 합병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인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지난해 CJ제일제당과 CJ ENM, CJ 프레시웨이 등의 대표를 교체했고, 계열사 성적도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CJ제일제당에서 분사된 건강사업부 CJ웰케어만 수장 자리가 비어있다. 이재현 회장이 ‘웰니스’를 성장동력으로 제시하고, 바이오·헬스케어 사업을 키우고 있는만큼 이선호 부장이 CJ 웰케어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